

광주 휘발유 가격,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 수준 ↓

21일 휘발유·경유 ℓ 당 1천728원·1천837원 기록 7주 연속 하락세...고점 대비 각각 395원·313원 ↓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국제 유가 하락에 힘입어 지역 휘발유 값이 7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 가격 때까지 감소한 수치로 운전자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광주 지역 휘발유와 경유의 리터(ℓ)당 평균 가격은 각각 전날보다 각각 1.6원·0.4원 내린 1천728원·1천837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월1일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석유류 가격을 잡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한 이후 7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 내린 1천728원·1천837원) 313원 하락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던 휘발유 값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2월24일, 1천734원) 이전 가격에 육박하기도

했다. 여전히 국제적 품귀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경유에 비해 공급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유류세 인하 영향을 경유보다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휘발유값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에 이른 데 반해 경유값은 여전히 전쟁 이전(1천557원)보다 약 300원 가량 웃돌며 휘발유값과 100원 가량 격차를 보이는 등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광주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뛰어넘은 건 지난 6월15일 휘발유·경유가 전날 대비 4원·6원 오른 2천49원·2천50원을 기록하며 역전된 이래로 두 달 넘도록 지속되고 있다.

휘발유에 붙은 세금이 경유보다 많은 만큼 유류세 인하 효과를 상대적으로 경유가 덜 받는다는 점과 더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액화 천연가스(LNG) 가격이 치솟자 대체품으로 경유 수요 증가, 주요 경유 생산국인 러시아 수출 차질을 비롯해 러시아산 경유의 존도가 높은 유럽연합(EU)가 금수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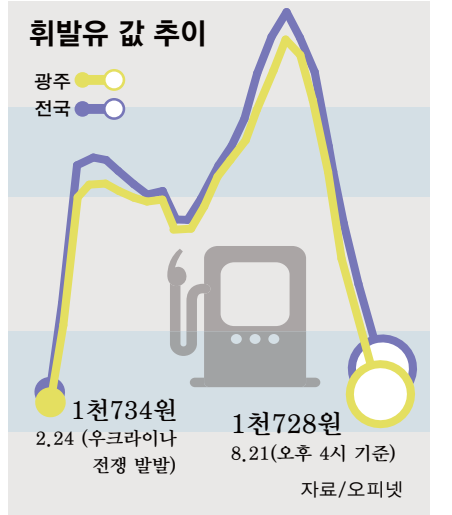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국제 유가 하락세에 따라 7주 연속으로 내렸다. 지난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셋째 주(8.14~8.18)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53.1원 내린 ℓ(리터)당 1천780.2원으로 집계됐다.

에 따라 다른 수입처를 찾으며 국제 경유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경유값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휘발유보다 다시금 값싸질 것이

라는 낙관적인 전망은 어두워 보인다. 현재도 부족한 경유 수급이 동절기에 가까워질수록 난방 등 수요가 늘어나기에 가격 차가 당분간 좁혀지기 어려울 것

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유업계는 다음달 초·중순까지는 국내 기름값이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내 유가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에 2-3주의 시차를 두고 후행하는데 최근 국제유가 추이를 고려할 때 이달 말까지 국내 유가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3.4달러 내린 배럴당 92.5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유가는 미 연준 금리 인상 지속 시사, 중국 경제지표 둔화, 이란 핵협상 타결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양시원기자

한전, 전력 과부하 위험 예측 기술 개발 주력

LS일렉트릭과 전력설비 원격감시 서비스 개발 '협약'

한국전력이 전력 설비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 과부하 위험을 예측하는 기술 개발에 나섰다. 최근 여름철 폭염 등 기상 이변과 건조기, 스타일러 등 새로운 가전제품의 보급 확대로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데다, 전력설비의 노후화와 용량 부족으로 인해 정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

을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LS일렉트릭과 전력데이터를 활용한 고객 전력설비 상태 원격감시 디지털 신서비스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고객의 전력 설비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석 기술 등을 활용해 과부하 위험을 사전에 안내하고 설비를 진단하는 전력 설비 원격감시 디지털 신서비스 사

업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전력 설비의 노후화와 용량 부족으로 인한 정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기술 검증 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한전은 자사의 전력 빅데이터 분석 역량과 LS일렉트릭의 스마트 전력 및 자동화 솔루션 개발 역량을 결합해 정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과워체크 모바일' 앱을 통해 전력사용량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전은 LS일렉트릭과의 협력을 통해 고객 전력설비 데이터를 융합·분석해 정전 예방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로 개발할 방침이다.

송호승 한전 디지털변환처장은 “한전의 전력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LS 일렉트릭의 스마트 에너지 기술 역량을 결합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하고, 전력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신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수희기자

광주은행, 건강식 나눔 봉사활동 펼쳐

광주은행은 지난 18일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건강식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송중욱 광주은행장을 비롯한 광주은행 임직원 및 대학생 홍보대사 등 총 20여명과 김이강 광주시 서구청장 등이 동참해 삼계탕과 함께 기정떡, 연근부각, 홍삼캔디 등 건강간식을 전달했다. <사진>

송 은행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배식 봉사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건강식을 나눠드리는 것으로 대신해 아쉬움이 크지만 어르신 한분 한분께 따뜻한 응원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나눔 봉사의 기업문화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광주, 목포, 순천 등 각 지역의 노인복지시설을 찾아 지역 어르신에게 보양식을 대접하는 배식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기수희기자

(주)여보야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청년 고용 창출 성과 등 높이 평가

(주)여보야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돼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우수기업 인증제로 일자리 확대와 노동시간 단축, 일·생활균형 실천 등 고용의 질이 높은 100개 기업을 선정해 인증패를 수여하고 격려하는 제도다.

여보야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신규 고용창출과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최근 2년간 154명의 청년 채용과 20명의 계약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 외에도 노동시간 단축 및 일 생활

균형 실천, 청년 연장 등 고용안정 기여, 여성 근로 일자리 창출, 구성원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복지제도 실천, 병역지정업체 선정 등에서 고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회사로 평가받았다.

여보야 관계자는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된 고용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 노력의 결과로 풀이된다”면서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이루고, 일자리에서 시작된 활력이 지역경제의 성장과 복지로 이어지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보야는 지난 2019년에는 지역 인재 유출과 경력직 이탈 방지를 위한 고용 안정화 노력을 인정받아 광주시로부터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화 표창을 받은데 이어 2021년에는 청년과 취약 계층 채용에 적극 앞장선 공로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양시원기자

스마트한 에너지사용 캠페인

난방비 똑똑하게 절약하는 방법!

- 1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20℃입니다. 난방온도 1도 낮추면 에너지사용량을 7% 줄일 수 있습니다.
- 2 뽕뽕이와 문풍지로 외풍을 막으면 실내온도를 2~3도 가량 높일 수 있습니다.
- 3 내복, 양말 등 실내에서 방한용품을 활용하면 체감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4 전열기는 꼭 필요한 때만 사용하고, 사용 시에는 소비전력을 꼭 확인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정경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남도의 산해진미가 가득한
강진오일장터

● 장이 서는 날 ●
매월 4일, 9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 TV** 후원 : **강진군 GANGJINCITY** 문의 : 062)650-2099